

# 인사말

## 존경하는 성인간호학회 회원여러분께



2013년 계사년(癸巳年)을 시작하던 날의 설레임이 아직 그대로인데, 56년만의 최강한파 앞에 퐁퐁 얼어붙었던 세상이 우수(雨水)의 촉촉한 비 속에 슬금슬금 녹아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잔설(殘雪)에 덮인 땅을 헤집고 돌아난 푸른 싹을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을 물리고 새봄을 맞아들이는 길목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회원님들에게 안부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추웠던 겨울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해 성인간호학회장이라는 중한 소임을 맡고 회원님들께 뉴스레터를 통해 흥중에 품은 세 가지 소망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소망 중에도 성인간호학회 회원 한분 한분이 성인간호학회의 영광과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망이 제게 최우선 순위라는 것과,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성인간호학회원 명부를 최신정보로 재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봄에 시작한 작업이 지난 여름 일차 완성을 보았고, 이후 가을과 겨울에 이르도록 그 때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소수 회원들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이제 최종완성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뀐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성인간호학회원이면서도 성인간호학회의 네트워크에서 분절되어 있었던 회원님들이 다시 성인간호학회 네트워크 내로 복귀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이 명

부를 그 통해 회원님들과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좀 더 긴밀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수확이고 비할 데 없이 귀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2012년에는 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성인간호학회 회원들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의 변화와 간호교육인증평가 등 대내외적인 도전에 대처할 전략을 마련하는 일에 학회가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학술대회의 주제로 설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국내 최고 권위자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하고, 해결책의 실제 모델사례를 제시하는 등 진지하고도 다각적인 학회의 노력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유례가 없는 많은 학회 참석자 수가 이러한 생각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2013년에는 성인간호학회 단독의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성인간호학회가 그 학문적 역량을 한 차원 높이고, 국제적인 역량 역시 업그레이드 할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013년 성인간호학회 국제학술대회 역시 많은 회원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진철한 멋진 학문의 잔치상을 함께 향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회원들께서 주셨던 후의와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히 이번 해에는 지난해 주셨던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사랑과 관심을 소망해 봅니다.

2013년 모든 회원님들께서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순항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2월

성인간호학회 회장 김분한